16. 교회의 교계 제도

교회는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사명을 지닌, 구조를 갖춘 사회입니다. 온 교회가 믿는 데에 그르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은, 교도권이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고 참되게 가르치도록 교도권에도 주어집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례 받은 남성만을 사제품에 불러왔습니다. 오직 남자들을 사도로 뽑으신 그리스도의 뜻에 매여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친교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와 은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조를 갖추어 주신 사회입니다. 교회가 하느님 자녀들의 친교인 것은,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이신 같은 빵을 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구조를 갖춘 사회인 것은, 세례 받은 이들 사이에 안정된 관계가 있어 그 관계에 따라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사명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비유처럼, 목자가 양 떼를 이끌고 돌보며 좋은 풀을 뜯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듯이(요한 10,11-18; 시편 23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십니다[1]. 목자와 양 떼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그리스도처럼 목자가 양 떼에게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성경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한계가 있지만, 교회 안에 친교와 사회적 구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바로 그 성사들이 교회의 구조를 세워,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보편 성사가 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를 통하여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사명에 참여합니다. 성사와 은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에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 온 세 가지 큰 신분이 나옵니다. 곧 평신도, 성직자(성품성사를 받아 교회의 교계를 이루는 부제, 사제, 주교), 그리고 수도자입니다.

교회가 교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하느님께 이끌어 가는 사명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므로, 누구도 이 사명을 수행하려고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려면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한 15,5 참조). 그러므로 어떤 이들, 곧 교계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하여, 모든 이가 복음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이의 사명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교계의 직무가

---

[1]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4 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양 냄새'를 풍기고,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자와 교계의 관계는 선교적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령의 힘 안에서 이어지는 성자의 사명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계는 어느 한 집단이 자기 뜻을 강요하여 다른 집단을 누르고 우위를 차지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 아닙니다.

로마 교황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며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성 베드로에게 사도단을 이끌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루카 22,31-32 참조). 모든 개별 교회는 로마 교회와 결합되어 있고, 그 교회들을 이끄는 모든 주교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이끄는 로마의 주교와 친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주교의 직무는 주교단의 일치에 봉사하고, 그렇게 하여 교회의 일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주교단의 으뜸이며 온 교회의 목자이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바에 따라, 온 교회에 대하여 완전하고 최고이며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권한을 지닙니다. 교황의 이 권한에는 내적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황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교회가 언제나 신앙 안에 머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마태 16,19 참조), 성령의 힘으로 당신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 충실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특성은 교회 전체가 지니는 것이지, 각 지체가 따로따로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 전체는, 신자들과 교도권을 함께 이끄시는 성령의 활동 아래,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의 인도를 받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고수할 때 그르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믿는 데에 그르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은, 교도권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고 참되게 가르치도록 교도권에도 주어집니다. 몇몇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교도권의 가르침에 오류가 없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교도권은 주님께서 당신 교회에 약속하신 바로 그 무류성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교도권의 무류성은, 로마 교황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지니는 권위에 따라, 또는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주교단이, 특히 세계 공의회에 모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행사됩니다. 또한 교황과 주교들이 그들의 일반 교도권으로 어떤 교리를 결정적인 한 목소리로 제시할 때에도 행사됩니다. 모든 신자는 신앙의 순종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2]

---

[2]“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185 항.

로마 교황의 사명이 지닌 책임과,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교황이 지니는 권위를 확신하기에,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위하여 열심히 전구의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교황과 일치를 이루기에, 교황이 지닌 어떤 구체적인 개인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교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교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잘 양성되기를 바라는 가톨릭 신자는 자신이 품은 의문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느끼는 주제를 더 깊이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얼마간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해 차이가 남는다면 침묵을 지키고[3], 적어도 교황의 가르침에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4]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부활의 선택된 증인들이며 당신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고 지키며 충실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 구조로도 사도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인 주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를 이루며 교회를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계승이란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도들의 사명과 권한이 그 후계자들인 주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교들은 하느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에 전하도록 받은 은사들만을 받습니다. 이러한 전수 덕분에 교회는 그 기원과 신앙과 삶에서 친교를 유지하며, 여러 세기에 걸쳐 그 모든 사도직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넓히는 데로 향하게 합니다[5].

주교단도 교황과 친교를 이루면서(결코 교황 없이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완전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주교들은 사도적 신앙의 참된 증인으로서 가르치고, 말씀과 성사, 특히 성체성사의 직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어 줌으로써 거룩하게 하며, 이 땅에서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6].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교계를 세우시어, 성사를 통하여, 그리고 당신께 받은 위임에 따라 권위를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신자에게 당신을

---

[3]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Donum Veritatis), 31 항 참조.

[4]"교회법전", 제 752 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2 항 참조.

[5]"가톨릭 교회 교리서", 861-862 항.

[6]"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184 항, 186 항 이하.

현존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계의 구성원들은 또한 하느님 백성을 이끄는 사명도 받았습니다(마태 28,18-20 참조). 교계는 성직자들, 곧 주교와 사제와 부제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직무에는 단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곧 교계 구성원들의 일치는 신자들의 친교에 봉사합니다. 각 주교는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으뜸인 교황과 일치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교황과 다른 주교들과 함께 보편 교회에 대한 염려에 참여합니다. 또한 개별 교회를 맡았다면, 받은 권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는 온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교황 아래에서, 직권적이고 고유하며 직접적인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무에는 또한 개인적 성격도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명을 맡기신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주교 직무에 대한 사제단의 참여

교회의 직무는 하나입니다. 사도 직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세우신 바에 따라 그 직무는 주교직, 사제직, 부제직의 세 품계로 나뉘어 참여하게 됩니다. 직무의 이러한 단일성은 세 품계 사이의 내적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이 품계들은 누적적입니다. 곧 세 부류나 세 종류의 직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직무, 하나의 성품성사의 품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교품을 받은 이는 여전히 사제이며 부제이고, 사제품을 받은 이는 여전히 부제입니다. 또한 이 성사에는 교회적 일치가 있습니다. 이 직무는 친교의 직무입니다. 친교를 위하여 수행되고, 내적으로도 같은 성사를 여러 품계로 받은 이들과 이루는 직무적 친교로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교회에서 사명을 수행할 때 주교는 그 교구에 입적된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들은 주교의 주된 협력자이며 대신할 수 없는 협력자입니다. 사제들은 주교가 그 충만함을 지니고 있는 유일하고 동일한 직무 사제직을 입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곧 주교의 안수와 축성 기도로 이 사제직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제들은 사제단에 속하게 됩니다. 사제단은 주교와 결합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한 같은 사목적 사명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제로 이루어진 안정된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주교가 자신의 염려와 책임에 사제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선택 사항이거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명을 함께 나누는 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주교는 그 사명의 머리이며, 그 사명은 성품성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을 사목적으로 돌보는 데에서 주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이들입니다. 사제들은 특정한 장소나 분야에서 주교의 염려를 반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거행합니다.

남성에게만 사제직이 허용되는 이유

교회는 처음부터 세례 받은 남성만을 사제품에 불러왔습니다. 교부 시대에 여성 사제직을 주장한 몇몇 분파가 있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 성 이레네오, 성 에피파니오, 테르툴리아노가 그들을 단죄하였습니다. 남성만을 사제직에 부르는 것은 교회의 이천 년이 넘는 사명의 역사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관행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교 선교가 흔히 여성 사제직을 둔 종교들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목자들이 이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편 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근본 이유는 계시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직 남자들을 사도로 뽑으신 그리스도의 뜻에 매여 있다고 여겨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를 사도단에 뽑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공생활 동안 당신을 따라다닌 여인들 가운데에서 뽑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어떤 사도들보다 더 충실하고 더 굳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남성과 여성의 협력을 받았지만, 사목 사명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을 뽑을 때에는 주님의 뜻에 매여 있다고 여겨 남성만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들을 대하실 때 결코 문화적 범주에 얽매여 행동하신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존엄을 지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행동은 당시 유다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고, 이 점에서 스승을 따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여성의 사제직 수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견해는,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정당한 문화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바람과 함께 힘을 얻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더 큰 관심은 모든 인간이 똑같은 존엄을 지닌다고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한 결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견해는 교계 구조를 지닌 교회의 성사적 형태를 마치 순전히 인간적인 조직 방식인 것처럼 봅니다. 요컨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문화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사명을 위하여 조직을 갖춘다면, 이제는 여성들을 그 사회 구조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고,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더 잘 맞으므로 사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 방식 가운데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어 온 사회적 형태를 새로 만들거나 받아들인 결과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선택하시고 원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앞의 것들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창의성에서 나온 것이고, 뒤의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앞의 것들은 사명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뒤의 것들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 안에서 교회는 무엇이 첫째 부류에 속하고 무엇이 둘째 부류에 속하는지 식별합니다. 이 식별이 쉽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인내와 연구,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에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성 바오로 6 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은 이 문제를 연구한 뒤, 교회에는 여성을 직무 사제직에 받아들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1994 년에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재검토의 대상이 아닌 교회의 결정적 가르침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7]. 이듬해 신앙교리성은, 목자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온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교회에서 언제나 이것을 가르쳐 왔음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 안에서 당신 교회에 약속하신 무류성을 지니는 가르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겔 데 살리스(Miguel de Salis)

기본 참고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871-896 항.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177-187 항, 333 항.

[7]교황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 1994 년 5 월 22 일, 4 항.